

독자투고

미세스 코리아,
주부를 슬프게 한다

김향림/서울시 양천구 신월4동

SBS가 방영하는 ‘미세스 코리아’라는 프로가 주부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. 여성은 연령 여하를 떠나 ‘꽃처럼 아름다워야 한다’는 대명제(?)에서 출발하고 있는 이 프로를 본 대다수의 주부들은 한숨을 쉴 것이다.

“나하고 똑같이 살림하는 주부인데 어쩔 저렇게 고울까?”에서부터 “남편 잘 만나 저런 호강도 하지”라는 푸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처지를 되짚어보면 ‘초라한’ 모습에 눈물 마저 글썽거릴 주부들도 있으리라 생각한다.

며칠전 학교에서 일찍 돌아온 아이와 함께 우연히 이 프로를 보게됐다. 한참 열심히 지켜보던 아이가 “다른 엄마들은 저렇게 이쁜데...”라며 후줄그레한 내 모양새가 한심스럽다는

듯이 쳐다봤다. 국민학교 5학년에 불과한 아이의 입에서 나온 소리가 왜 그리 섭섭했는지. “나도 꾸미고 나가면 저렇게 이쁠 수 있어”라며 웃어넘기고 말았지만 씁쓸한 기분이 오랫동안 가시지 않았다.

언젠가는 방송에서 ‘으뜸 주부’라는 대회를 마련해 공연히 시댁과 남편 앞에 주눅들게 만들더니 이제는 ‘아줌마도 이렇게 예쁠 수 있다’를 보여주는 미세스 코리아가 나오질 않나...

아름다워서 나쁠거야 없지만 아름답지 못한 대다수의 여성들이 그 프로를 보면서 느껴야 할 열패감과 상대적 빈곤감 등이 불을 보듯 훤히하다.

생산적인 곳에 쏟아야 할 주부들의 관심을 그런 소비적인 데로 유도하고 있는 방송국에 프로방영 재고를 요청해 본다.